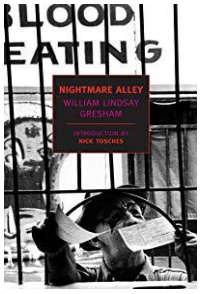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NIGHTMARE ALLEY
가제 : 악몽 속의 골목
저자 : William Gresham
출판사: NYRB Classics
발행일: 2010년 4월 6일(2판) / 초판 1946년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Guillermo del Toro 감독이 제작하는 브래들리 쿠퍼 주연 차기 영화의 원작 소설**
*** "영리하고 섬뜩한 이야기.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두 번 다시 누군가를 괴짜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 「타임」지**
*** "이 소설이 명작으로 남은 이유는 휘몰아치는 내러티브의 힘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동물은 혼자이고 운명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꿈꾸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그린 이 책만큼 더 인간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 - 「LA 타임스」**

1946년에 초판이 나온 후 큰 인기를 얻어 1947년 타이론 파워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미국 클래식 누아르로 자리 잡은 소설이 다시 한 번 영화화될 예정이다. 그래픽 소설로도 출간된 적이 있을 만큼 읽는 내내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소설은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을 통해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순탄치 않았던 삶을 견디며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던 작가가 보이지 않는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심리분석, 기독교, AA(알코올 중독자 협회), 선종까지 섭렵하며 미친 듯이 탈출구를 찾아다녔던 경험을 주인공 스탠에게 고스란히 투영한 자전적 소설이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끈질긴 기대를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평가받는 인상적이고 매혹적인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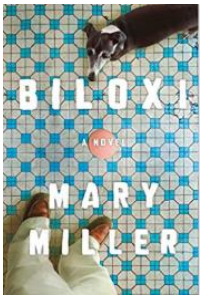
소설은 '기괴한 쇼'라 불리던 순회 행사에 푹 빠진 어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어에서 'geek'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IT 분야를 중심으로 남들이 잘 모르는 어렵고 난해한 기술을 잘 알고 좋아하는 별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지만 이 소설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단어의 본 뜻에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대중의 혐오 섞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스탠은 남의 불행을 낄낄대며 바라보는 것을 즐기던 대중의 이글대는 시선 앞에 선 기괴한 쇼의 주인공들에게 큰 관심을 갖는다.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중을 모으기 위해 진행되던 사이드 쇼에 등장하며 그 시끌시끌하고 혼잡한 세계에 첫 발을 들인 스탠은 살아 있는 동물을 씹어 삼키는 등 온갖 괴상망측한 행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아해한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한다.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스탠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달려들 줄 아는 잔인성도 있었으며 곧 시시한 마술 정도만 하던 위치에서 실속 있게 한 푼 벌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낸다. 매력적인 외모와 서글서글한 성격을 잘 활용한 덕분에 동료들에게도 호감을 산 그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타로 카드를 읽어주며 고객들의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주던 스탠은 세상에 돈 많고 무료하며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 다니는 순진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조금만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닫는다. 운세를 봐주던 수준을 넘어 아주 미세하고 교묘한 기술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전문 사기꾼으로 급성장한 스탠은 화려한 사교계의 1순위 손님으로 자리 잡는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번드르르한 말로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돈을 빼앗는 일에 중독되다시피 한 스탠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한다. 버려진 양심만큼 눈을 감아버린 현실 인식 능력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급속한 추락의 길로 자신을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스탠은 서서히 몰락한다.

소설의 제목은 스탠이 어릴 때부터 꾸던 악몽의 주된 무대가 되는 "골목"을 가리킨다. 악몽 속에서 스탠은 텅 빈 건물들이 시커먼 괴물처럼 양쪽에서 내려다보는 좁은 골목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길 끝에 환하게 타오르는 불빛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곧 바짝 다가온 그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에 온 몸을 떨며 깨어난다. 수십 년이 지나 스탠이 크게 성공한 자산가가 되는 동안 끈질기게 그를 옭아매며 수없이 반복된 이 꿈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불빛이 있는 골목 끝까지 무사히 도착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의 예정된 몰락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이 꿈처럼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스탠도 결국 머리 꼭대기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걸려들고 만다. 심리 치료사인 자신의 연인에게 교묘히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이제 스탠의 앞에 놓인 길은 치밀한 덫에 걸렸다는 믿기 힘든 깨달음과 술, 끝없는 절망, 그리고 살인과 죽음뿐이다. 작가는 어둡고 캄캄한 골목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벽 사이에 놓인 인간이 그 속에서도 꿈을 꾸고, 벽 너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으리라 희망을 잃지 않는 더 없이 인간적인 메시지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그림처럼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준다. 인간의 심리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명작이다.

<저자 소개>

윌리엄 그레셤(William Gresham)은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코니 아일랜드에서 서커스와 사이드 쇼를 보며 자랐다. 1947년에 위 소설을 발표한데 이어 소설 『LIMBO TOWER』, 논픽션 『MONSTER MIDWAY』(1953), 『HOUDINI』(1959), 『THE BOOK OF STRENGTH』(1961)를 발표했다.



제목 : BILOXI
가제 : 마이 리틀 프렌드
저자 : Mary Miller
출판사: Liveright
발행일: 2019년 5월 2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작가는 갈 곳 잃은 60대 남자와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스러운 개를 통해 참담한 외로움을 조명한다. 놀라움이 가득해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 이야기" - 「라이브러리 저널」**

*** "통찰력과 위트가 가득한 글에 가차 없으면서도 인정 많은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맛깔나는 흡입력, 부드러운 괴팍함과 함께 놀라울 만큼 큰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소설" - 「커커스 리뷰」**

37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부친이 꽤 많은 유산을 물려주리라는 기대에 충동적으로 조기퇴직을 선택한 루이스는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을 매일 비슷한 일을 하며 흘려 보낸다. 소파에 온종일 드러누워 리얼리티 쇼를 보고 맥주를 물처럼 홀짝이거나, 만나면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딸과 만나지 않기 위해 이리 저리 딸을 피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던 루이스는 예기치 않은 순간 뜻밖의 식구를 들이게 된다.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반려견을 들인 것이다. 앤 비티, 레이먼드 카버의 뒤를 이어 한 세대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작가로 평단의 호평을 받아온 작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와 특별히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개가 한 식구가 된 곳, 미시시피 주 빌록시로 우리를 데려간다. 미국 남부의 특징이 진하게 배인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루이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아버지의 유산만 오매불망 기다리다 살짝 통통한 믹스견 레일라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장소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시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루이스와 레일라를 때로는 관찰 일기처럼 세밀하게 묘사한 글을 읽다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막히게 묘사할 줄 아는 작가에 대해 '평범한 일상을 사회학자의 눈으로 주시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소설가'라고 평가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루이스는 아내가 모는 차와 비슷하게 생긴 차만 봐도 핸들을 확 꺾어 버릴 정도로 아내 엘렌과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당뇨 약을 받으러 가까운 대형마트 근처 약국에 간 날에 엘렌의 차와 너무 닮은 색깔의 자동차를 보고 화들짝 놀라 핸들을 돌려 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를 갈며 우회로를 찾던 그 때, 우편함에 바람 빠진 풍선과 함께 매어진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개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얼떨결에 차를 세운 루이스는 작정하고 온 사람마냥 마당으로 나온 덩치 큰 남자와 악수를 나누었다. 자신을 해리 데이비슨이라고 소개한 그는 개를 열댓 마리 키우는데 얼마 전 결혼한 아내가 개털 알레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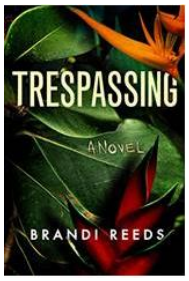
라 어쩔 수 없이 분양 중이라고 설명하고는 그 중에 보더 콜리인 레일라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왜 다 보여주지 않고 그 한 마리만 보여준다고 하는지도 그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루이스는 보더 콜리라기보다는 믹스견에 더 가까운 레일라를 본 직후 바로 입양을 결심한다. 대체 왜 거기에 차를 세웠는지,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개를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레일라는 루이스의 차에 태워지고 새 식구가 된다. 묘하게 강압적인 해리의 태도에 휩쓸려서, 혹은 왠지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던 것 같지만 그 이유는 곧 중요치 않게 된다. 레일라에게 스스로도 당혹스러울 만큼 푹 빠진 해리는 외동딸인 맥신을 키울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 레일라를 데리고 갈 만한 애견 공원을 물색하고, 식비의 상당 부분을 레일라의 음식과 간식으로 소비하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예전에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귀찮기만 하던 이웃들에게 새삼스레 깊은 유대감까지 느낀다. 첫 만남에서 루이스가 눈치 챈 것처럼 레일라는 순종견도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영리한 개도 아니었으며 조금만 긴장하면 먹은 걸 토해내는 점박이 믹스견이었지만 이 서툰 주인에게 금세 정을 붙인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남은 음식을 싸와서 매형에게 건네는 착한 처남 프랭크 외에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루이스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뀐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새로운 막이 열린 것 같다고 느낄 만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레일라에게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우연히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어느 날, 루이스와 함께 산책을 나왔던 레일라를 지나가던 한 여성이 단번에 알아본다. 레일라를 넘겨준 해리의 아내 사샤였다. 사실 해리는 아내 몰래 평소 가장 싫어하던 개를 허락도 없이 넘겨버렸던 것이었고, 개가 혼자 어딘가로 도망쳤다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사샤는 루이스가 레일라를 키우게 된 연유를 듣고 길길이 화를 낸다. 그러더니 급기야 집을 나와 루이스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다. 반려견에 이어 젊은 여자와 동거까지 하다니! 인생 참 알 수 없다고 느끼는 것도 잠시, 처음에는 나름 행복하고 신선했던 사샤와의 동거도 슬슬 삐걱대기 시작한다.

작가는 지독한 고집쟁이에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 없이 내뱉고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편견 가득한 자신만의 잣대로 평가하는 불쾌한 중년 남자의 내면을 잔잔하고 유머러스하지만 날카로운 문체로 분석하여 소소하지만 별난 사건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볼 법한 상황들과 함께 섬세하게 보여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불안감을 감추고 싶어 하는 루이스의 모습은 이해 안 가는 일 투성이인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각자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의도치 않게 사이가 멀어진 딸에게 레일라를 계기로 조금 더 다가가고,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서 투박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쓰는 루이스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미소를 떠오르게 한다. 세밀한 관찰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메리 밀러(Mary Miller)는 단편집 『Big World』와 『Always Happy Hour』, 소설 『The Last Days of California』를 쓴 작가다. 현재 미시시피 주 옥스포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RESPASSING
가제 : 무단침입
저자 : Brandi Reed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심리 스릴러

*** 터키 판권 계약 /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 종이책과 전자책 합산 20만 부 이상 판매**
*** "으스스한 고딕 소설의 공포와 현대 스릴러 소설의 흡입력 넘치는 서스펜스가 결합된 소설" - 베스트셀러 『All the Little Children』의 작가 조 퍼니스**

쉽지 않은 불임 치료에도 불평 한 마디 없는 자상한 남편 미카와 수십 번의 시도 끝에 힘들게 얻은 딸아이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던 베로니카는 사랑스러운 딸이 과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 다른 엄마들이라면 세 살짜리 꼬마들은 원래 그렇게 논다고 넘길 만한 일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친구와 하루에도 몇 번씩 깔깔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엘리자벨라의 모습을 베로니카가 그저 창의적인 아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는 베로니카가 엄마를 정신질환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베로니카 스스로도 엄마의 조현병 기질이 발현되면 어쩌나 늘 두려워하며 살았고 만의 하나라도 어린 엘리자벨라의 행동이 그 병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석연치가 않다. 엄마가 다시 불임 치료를 시작한 것을 보고 동생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반 년 전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한 엘리자벨라가 '니니'라는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어낸 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유산 이후 베로니카가 2주 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이 엘리자벨라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고 그 후부터 니니가 등장했으니 의사의 말도 일리가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파일럿인 미카가 뉴욕으로 장거리 출장을 앞둔 어느 날, 엘리자벨라는 섬뜩한 말로 베로니카가 겨우 눌러놓은 불안감을 다시 불러 일으킨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비행기는 물에 들어가고 아빠는 비행기 없이 하늘을 날아 갈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던 베로니카의 엄마는 보석 디자이너였다. 인정하긴 싫지만 엘리자벨라도 그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 받은 건 분명해 보였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베로니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겨우 마음먹는다. 엘리자벨라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한 불임 치료로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닌 만큼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리라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으로 떠난 미카는 정해진 일정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가족과 일만 아는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미카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베로니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에 봉착한다. 엘리자벨라가

했던 말들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한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니니'는 상상 속 친구가 아닌 실제로 살아 숨쉬는 미카의 또 다른 아이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베로니카 자신이 엄마처럼 미쳐버린 건 아닐까 괴로워한다. 미카가 실종된 직후 수년 만에 나타난 대학 동기 나타샤도 베로니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룸메이트로 처음 만나 피를 나눈 자매 마냥 가까웠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나타샤와 베로니카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건 바로 미카 때문이었다. 나타샤의 남자친구였던 미카가 베로니카와 사랑에 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박살이 나고 말았는데, 왜 갑자기 미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시점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까? 베로니카는 나타샤에게 엘리자벨라보다 몇 살 더 많은 딸아이가 있으며 어쩌면 그 아이가 니니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된다. 미카와 나타샤가 지난 세월동안 베로니카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해온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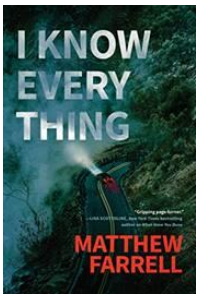
베로니카가 유산으로 입원했을 때 미카가 휴가를 보낸 플로리다의 어느 호숫가 근처에서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들이 미카와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카의 실종을 둘러싼 수사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 버려진 미카의 차량도 발견되는데, 차의 번호판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져 있고 차 내부에는 혈흔이 낭자하다. 호숫가 집에서 죽은 가브리엘라라는 여성과 두 명의 남자아이가 나타샤와도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 베로니카의 시어머니가 미카의 이중 혹은 삼중 생활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다. 베로니카는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불임 치료를 위해 미카는 오래 전부터 정자은행에 정자를 보관해 두었고 가브리엘라는 미카의 정자로 아이를 낳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사랑했으며 평생 함께 살고 싶었던 나타샤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미카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엘리자벨라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된 베로니카는 스스로를 믿고 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살인자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 반전이 거듭되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랜디 리즈(Brandi Reeds)는 사샤 다운(Sasha Dawn)이라는 필명으로 YA 소설을 써온 작가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역사와 영어를 공부하고 세튼 힐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데뷔 소설 『Oblivion』은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우수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일리노이 주 독서 위원회에서도 '2016년 주목할 만한 책'으로 소개됐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주방 디자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I KNOW EVERYTHING
가제 :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자 : Matthew Farrell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33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반전이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며 빠른 속도감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릴러" - 『Jar of Hearts』 의 작가 제니퍼 힐러**

대형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소규모 단체들을 아낌없이 후원해온 아만다 브록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날, 그녀의 싸늘한 시신이 가파른 산길에서 발견된다. 워낙 경사가 심하고 외진 도로라 처음에는 모두가 운전 부주의로 경계 벽을 넘어 산 아래로 추락한 사고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검에서 아만다의 혈액이 사망 시점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응고되었다는 사실과 목 뒤를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사고는 살인 사건으로 바뀐다. 수사를 맡은 수잔은 새로 부임한 동료 토미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평온하게 살던 젊은 여성을 살해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2년 전 결혼한 남편 랜달 브록이 그날 시상식에 동석했다가 먼저 일찍 자리를 뜬 점과 심리학자인 그가 진행 중인 연구에 차질이 생겨 마무리하느라 학교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랜달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다. 그의 주된 연구의 대상은 정신병 환자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을 만큼 폭력성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었다. 랜달은 그들의 잔인하고 어두운 판타지를 입 밖으로 꺼내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살해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환자들을 상대로 학계가 인정할 만한 명확한 성과를 내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던 랜달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환한 미소를 띠며 단상에 올랐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심지어 자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런데 아만다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 어느 날 밤, 낯선 남자가 랜달을 찾아온다.

자신을 샘이라 불러 달라는 그 남자가 시커먼 코트에 큼지막한 후드를 쓴 차림으로 처음 나타난 곳은 랜달의 집이었다. 넓은 안마당 한쪽의 조경수 사이에 가만히 서서 랜달이 앉아 있던 서재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그를 뒤늦게 발견한 랜달이 창 밖으로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자 황급히 사라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샘은 학교로 다시 찾아온다. 꽤 젊고 멀쩡한 얼굴에 전날처럼 시커멓게 차려 입은 샘은 자신이 정한 가명이 랜달의 동생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말로 처음부터 랜달을 기겁하게 만든다. 큰 농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일꾼으로 살아야 했던 랜달을 내내 쫓아다니던 동생 샘은 집 근처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신은

아만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며 누가 아만다를 살해했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망 후 사라졌던 아만다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경찰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살인자를 알려준다는 말을 남기고 또 다시 사라진다.

"당신 생각보다 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난 다 알아," 라는 샘의 말은 랜달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벌벌 떠는 손으로 아만다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아만다는 외도 중이었고 랜달과 이혼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다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원래 남편 랜달의 이름이 올라가 있던 유서를 몇 번이고 수정해서 전부 자선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바꿔둔 것이었다. 수잔과 토미는 아만다가 왜 갑자기 랜달과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가 오랫동안 감추어 온 진실을 마침내 알아낸다.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이며 랜달 브록으로 살아온 아만다의 남편은 사실 5-6년전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으로 온 나라에 이름이 알려진 윌리엄 페더였다. 심리치료 전문가였던 윌리엄은 가이 앤더슨이라는 정신병 환자를 치료 중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병세가 호전되던 앤더슨은 갑작스레 발작처럼 이상 증상을 보이며 극도로 폭력적인 광기를 드러냈고,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22세였던 딸 릴리와 아내를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치료 능력을 확신했던 윌리엄은 경찰에 알리는 대신 직접 앤더슨을 만나 진정시키려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길로 수주간 앤더슨의 집 지하실에 감금당한다. 정신병 증상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한 앤더슨은 윌리엄의 아내와 릴리를 같은 방에 감금하여 쇠사슬로 묶고 고문을 자행한다. 급기야 바로 옆에 묶인 윌리엄에게도 두 사람을 고문, 강간, 폭행하도록 강요하던 앤더슨은 결국 윌리엄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둘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다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던 앤더슨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사살되고 그가 쏜 총에 맞고 죽어가던 윌리엄은 극적으로 구출된다. 하지만 수십 번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진 윌리엄 페더는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졌다. 바로 그가 이미 오래 전 암으로 죽은 랜달 브룩이라는 남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결혼까지 하고 또 다시 심리학 연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수잔과 토미는 아만다가 남편의 이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렇다면 랜달이 아내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사고로 둔갑해 죽여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유언장도 이미 다 수정되어 돈도 한 푼 받지 못하는데, 그가 정말 힘들게 유지해온 가짜 신분까지 다 들통날 위험을 무릅쓰고 살인을 저질렀을까? 랜달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그의 정체는 누구일까? 윌리엄 페더에게 앙심을 품고 랜달로 살고 있는 그에게 철저히 복수하려는 존재가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졸이며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흡입력 있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튜 파렐(Matthew Farrell)은 워싱턴 포스트와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에 오른 『WHAT HAVE YOU DONE』을 쓴 작가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THE GREAT GREAT WALLS

가제: 장벽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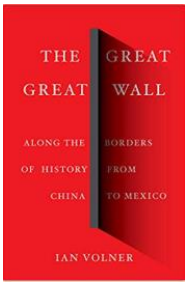
저자: Ian Volner

출판사: Harry N. Abrams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역사/건축



*** 일본에 수만 달러 규모로 판권 계약**

*** "건축학적으로 단순한 구조물인 벽을 정치적 은유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로 펼쳐 보인 문학적 연금술과 같은 책" - 『A Splendid Exchange』의 저자 윌리엄 J. 번스타인**

*** "벽을 세우는 일에 또 다시 정치적 우선순위가 매겨진 지금, 사회가 왜 경계를 짓는지, 그로 인한 궁극적인 대가는 무엇인지 꼭 필요한 맥락과 통찰을 제공한다" - 『El Norte: The Epic and Forgotten Story of Hispanic North America』의 저자 캐리 깁슨**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 미국 전체는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세우고 그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말은 2015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1년 반이 지난 현재, 3,200 킬로미터가 넘는 이 벽의 원형 중 일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해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건축 역사가인 저자는 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다수가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로 역사를 제시한다. 초기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인 1만여 년 전부터 인류가 정착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경계를 표시하고 주변과 구분 짓는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세워진 벽들 가운데 트럼프가 세우려는 것처럼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강력히 반영된 비슷한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내다본다.

우리는 왜 굳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벽을 세우려고 할까? 인간이 세운 벽에는 인간이 지닌 어떤 본성과 특징이 담겨 있는가? 벽이 완성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힘들여 세운 벽을 허물었을 때,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파괴되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중동 지역, 영국 북부, 중세 유럽에 세워진 요새를 비롯해 역사상 도시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벽을 볼 수 있는 예리코와 가장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요르단 서안 지구로 안내하면서 벽이 들려주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특히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중국의 만리장성을 찾아가 이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동안 일어난 무수한 우여곡절과 오랜

세월 만리장성에 부여된 신화 같은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수 차례 직접 방문하여 느낀 감상을 전함과 동시에 최종 완성될 벽의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 이 벽을 세우는 전 과정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이 곧 그 사회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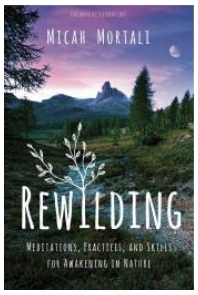
저자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짓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나온 이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의견과 정보를 종합하여 시의 적절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구상에 자리 잡은 단순하지만 복합적인 건축물 '벽'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앞으로 미국의 새 역사가 될 지도 모를 사태를 전망한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I. 차이의 발명
 - 예리코 / 정복
II. 만들어진 국경
 - 하드리아누스 / 제국
III. 불안정한 벽
 - 중국 / 위기
IV. 벽의 기능을 만드는 기술
 - 티에스 / 반응
V. 평범한 것을 짓다
 - 베를린 / 장악
VI. 그들이 돌아왔다
 - 웨스트 뱅크 / 통제
VII. 모든 벽의 기능

<저자 소개>

이언 볼너(Ian Volner)는 월스트리트 저널, 뉴 리퍼블릭, 하퍼스 매거진 등에 건축과 디자인에 관한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Michael Graves: Design for Life』와 2016년 독일 건축 미술관 북 어워드를 수상한 『This is Frank Lloyd Wright』가 있다.



제목 : REWILDING
가제 : 야생성을 되살려라
저자 : Micah Mortali
출판사: Sounds True
발행일: 2019년 12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건강/자기계발

* **"자연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자연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멋진 정보와 실천계획이 가득 담긴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Healthy Happy Sexy』의 저자 케이티 실콕스**
* **"저자는 다정하고 통찰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다시 유대를 형성하도록 이끌어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How to Be a Good Creature』의 저자 사이 몽고메리**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말이 우스개소리처럼 쓰일 때도 많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사실 이 말처럼 현대인의 정신적인 혼란을 잘 표현한 말도 없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쓸모 있는 존재인지라는 근원적인 회의감에 빠진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 더 크게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과 자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과 혼란이 역사상 유례없이 늘어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이 가진 야생성,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의 핵심을 다시 되찾아야 이렇게 끊어진 세상과의 유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기술과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상이 해결되는 편리한 세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몸과 마음, 본능에만 의존하여 외부 세상에서 길을 찾다 보면 자신의 내면도 훨씬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저자는 요가와 불교 전통, 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익힌 기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지만 현대 사회를 살면서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잊혀진 원시적 에너지의 불씨를 되살리고 어떠한 규범이나 기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의 자아를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매일 발을 디디고 사는 땅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이러한 단절은 인간과 자연의 필수불가결한 연결을 끊는다. 그로 인해 인간이 땅에서 얻어야만 하는 생명력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 결핍은 지금 우리가 무수히 목격하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저자는 인류가 땅과 계절, 인간세계를 벗어난 자연 전체와의 친밀하고 밀접한 접촉을 통해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내와 가상 환경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을 벗어나 진짜 세상,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바람의 냄새를 느끼고 시선이 닿는 한 멀리

내다보며 약화된 인체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 직접 먹을 것과 쉴 곳을 구해보는 것, 끊임없이 변하는 기후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맞춰 살아가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것, 자연이 알려주는 지혜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야생성을 되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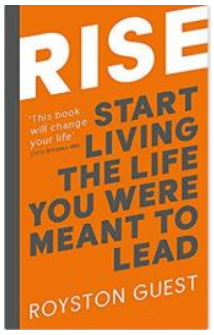
저자는 도시와 텅 비어 있는 땅, 교외 지역 등 자연 환경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장소에서도 눈을 크게 뜨면 자연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내적 인식 능력과 잠들어 있던 외부 감각을 확장시켜 지금껏 미처 깨닫지 못한 자연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왜 야생성을 회복해야만 하는지, 그것이 정신적, 신체적, 영적 건강에 총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명상과 관찰, 산림욕 등 야생성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준다. 잃어버린 본능과 감각을 일깨워 일상생활을 보다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색다른 길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 마음 챙김과 야생성의 복원
2. 독수리의 눈: 내면을 향한 여정은 우리를 외부로 이끌어준다
3. 우리가 사는 땅: 야생성을 복원하는 길
4. 고대의 기술을 되찾자: 움직임, 대비, 불 피우기, 쉴 곳
5. 유랑에서 벗어나기: 땅 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기술
6. 종합하기: 야생성 복원의 흐름

<저자 소개>

미카 모탈리(Micah Mortali)는 크리팔루 요가를 지도하는 '크리팔루 학교'의 대표이자 강사로 활동 중이다. 명상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강사로 20년 이상 일했다.



제목 : RISE
가제 : 어른을 위한 잠재력
(부제 : 여러분이 원했던 인생을 사는 방법)
저자 : Royston Guest
출판사: John Murray Learning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성공을 도와주는 개인 코치! 미처 깨닫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 기업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페리 파워(Perry Power)**

*** "뛰어난 통찰력과 현실적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 Princes Food HR 책임자, 조 덴트**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코 앞에 떨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가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곤 한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영 거리가 먼 현실에 매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지금 일하는 직장이나 삶이 썩 나쁘지는 않아서 그럭저럭 살아가더라도 그 아쉬움은 채워지지 않는다. 혹은 지금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현실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 지 몰라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라 변화는 곧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 여겨지고 과감히 현실을 깨뜨리는 건 도박 같아서 주저하며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년 이상 경영 컨설턴트이자 자기계발 코치로 활동해온 저자는 무수한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자신만의 이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발전시키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고 '나는 여기까지 밖에 못해' 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선이 다른 어떤 장애물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내면에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잠재력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 중 하나는 과거의 숱한 실패가 곧 자신의 미래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심지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실패 경험을 자신에게 덧씌워 '저 사람도 실패했다면 내가 해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확신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찾아와도 놓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한계를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무조건 안전하게 가려는 안이한 태도가 훨씬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전한다. 성공한 인생이 하나로 정의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자신에게는 무엇이 성공인지

깨닫고 나면 그 성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선명해진다. 그 다음부터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설립하고 큰 성공을 꿈꾸는 기업가처럼 '나'라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직접 회사 대표이자 영업사원, 재무 담당자가 되어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무수한 경영 지침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곧 올바른 것에 정확한 가치를 매길 줄 아는 눈,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현실적인 우선 순위를 정하고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특화된 능력을 드러내고 적극 활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건강에 유념하면서 맨 처음 세운 목표가 정말 원하는 결과이며 맞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줄 아는 세심함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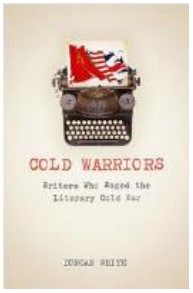
성공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고 때로는 안전보다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 시도가 무분별한 도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가?
인생의 발코니
'올라가기' 전략으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
1.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2. 우수함의 기준을 세워라
3.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
4. 우리는 모두 '한계가 없는 나'라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5. 인간답게 노력하는 법
6. 가치의 가치
7. 왜 굳이 '나'여야 하는가? '나'라는 브랜드
8. 죽음이 동기가 될 때
(이하 생략, 총 1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이스턴 게스트(Royston Guest)는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 'Pti Worldwide'의 CEO로 20년 넘게 27개국의 수많은 고객들과 일해 왔다. 자기계발 분야의 컨퍼런스 강연자로도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비즈니스 관련 블로그도 운영 중이다.



제목 : COLD WARRIORS
가제 : 냉전 시대의 문학가
부제 : 문학 작품은 어떻게 이데올로기의 무기로 이용되었는가
저자 : Duncan White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19년 8월 29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

*** 문학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냉전 시대를 조명하고 대표적인 작가, 작품들을 소개한 역사서**

195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서독 상공에는 3미터 높이의 특이한 풍선이 여러 개 떠올랐다. 폴란드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두둥실 떠올라 '철의 장벽'을 넘어 간 뒤 풍선 안에 묵직하게 채워진 내용물이 지상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식량도, 무기도 아닌 풍선 속 내용물은 바로 조지 오웰이 쓴 소설 '동물 농장'이었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 CIA가 비밀리에 공급된 자금을 토대로 공산주의 국가의 상공에 책을 뿌린 것이다. 당시 CIA는 무려 수천만 부에 이르는 책과 팸플릿, 포스터, 전단지를 특수 제작된 풍선에 실어 적국으로 날려보냈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이 같은 자료를 소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바람을 타고 들어온 풍선을 쏘아댔다. 서로 총기를 겨누는 것만이 전쟁이 아님을 보여준 냉전 시대의 이 조용하지만 뜨거웠던 싸움은 글과 이야기, 문학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싸우는 전사와 뛰어난 화력을 뽐내는 무기 못지않게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냉전 시대 문학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준다. 온갖 형태의 스파이와 기자, 선전과 저항, 이데올로기, 배신이 넘치던 시대에 문학이 냉전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동시에 냉전이 문학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몰고 왔는지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

문학이 사람의 생각과 정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냉전 시대 양극단에 선 초강대국들이 문학의 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국의 비밀 정보기관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이데올로기가 명확히 담긴 작가들의 글을 최대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선전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한편으로는 자국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이념과 반대되는 사상이 담긴 작가들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글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검열과 감시에 온 힘을 쏟았다. 저자는 철의 장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검열과 선전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24시간 언제든 원하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현 시대에는 소설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코믹한 유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냉전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잡아 끌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했던 만큼 사람의 마음을 동화시킬 수 있는 글의 힘은 총보다 훨씬 강력했다. 저자는 조지 오웰, 아서 케스틀러, 그레이엄 그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안드레이 시냐프스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메리 매카시, 존 르 카레 등 스페인, 미국, 영국, 러시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들의 이야기와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되었던 공문서들, 새롭게 공개되거나 작가가 직접 찾아낸 자료를 비롯한 풍성한 정보를 토대로 동구권과 서구권 작가들이 어떻게 '무기'로 활용되었으며 그들이 어떤 억압과 강요를 받았는지 보여준다. 때로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양쪽의 갈등을 고조시키는데 적극 참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의도치 않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놀라운 사례를 통해 왜 문학이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독특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역사, 감춰진 진실, 문학, 세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만한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처럼 긴장감 넘치는 묘사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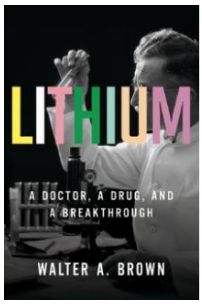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부
1. 오웰, 1937년 우에스카, 바르셀로나
2. 케스틀러, 1937년 말라가
3. 스펜더, 1937년 카디스, 발렌시아, 마드리드, 알바세테
4. 오웰, 1937년 바르셀로나
5. 케스틀러, 1937년 세비아
6. 스펜더, 오웰, 케스틀러, 1937년 마드리드와 런던
2부
7. 바벨, 1934년 모스크바
8. 매카시, 1936년 뉴욕
9. 바벨, 1939년 모스크바
(이하 생략, 총 8부 3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던컨 화이트(Duncan White)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텔레그라프 도서 리뷰어 겸 기고가로 활동 중인 저널리스트이자 학자다. 저서로는 『Vladimir Nabokov: Late Modernism』, 『Literary Marketplace』와 2015년 RSL 저우드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Cold Warriors: Waging Literary War Across the Iron Curtain』 등이 있다. 중세 미국, 러시아 문학에 관한 학술 논문도 다수 발표했다.

제목 : LITHIUM
가제 : 리튬
저자 : Walter Brown
출판사: Liveright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256쪽
장르 : 역사/의학



*** 출판 계약에 이어 경매를 거쳐 수만 달러 규모로 오디오 판권 판권 계약**
*** 페니실린, X선, 인슐린과 더불어 20세기 의학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쾌거 – 리튬의 조울증 치료 효과가 최초로 밝혀진 과정과 영향에 관한 기록**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병 치료제나 치료법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자리 잡은 지 채 수십년도 안 된 경우가 많다. 의학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급속하게 극적으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신질환이 과거 잔인할 만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20세기 중반이 넘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만성적인 중증 정신질환은 대부분 유전되고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결과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우울증 환자는 전기충격 치료를 받고 그 외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기약 없이 정신병동에 갇혀 살았다. 조울증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인슐린을 과량 투여하거나 뇌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등 끔찍하고 효과 없는 시도만 이어졌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정신의학 전문의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무수한 조울병 환자를 만난 저자는 나트륨, 칼륨과 비슷한 경금속의 일종인 리튬이 거의 아무런 희망도 없던 조울증 치료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환자들을 통해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누가 맨 처음 리튬을 약으로 쓸 생각을 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페니실린, X선, 인슐린 등 20세기 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손꼽히는 성과에 리튬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지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존 케이드가 1949년 발표한 논문에서 리튬의 명확한 조울증 치료 효과가 드러났는데 왜 미국 식품의약국은 1970년이 되어서야 치료제로 정식 허가했을까? 20년이나 리튬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약학 분야에 혁명을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고도 이름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 케이드, 그리고 배터리 원료라는 사실 외에 기적적인 치료 효과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리튬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우선 존 케이드에 의해 마침내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오기 전 조울증이 어떻게 처음 알려졌고 어떤 치료법이 시도되었는지 간략히 정리한다. 초기에 조울증은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도 힘들었고 1941년에 존 F. 케네디의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도 이 병을 앓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뇌엽절제술을 받았을 정도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던 병이었다. 그러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손

아귀에 들어간 싱가포르에서 전쟁포로 신분으로 정신질환에 대해 연구하던 존 케이드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큰 돌파구를 찾는다. 그의 끈질기고 세밀한 연구는 리튬염이 조울병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발견은 자칫 사라질 뻔했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 성과가 묻히지 않도록 계속 애써 온 학자들과 의사들에 의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리튬은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한 물질이라는 오명과 천연 물질로 약을 만들면 특허를 받기 곤란하다는 이기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혁신적인 치료법이 인정받지 못했던 암울했던 시기를 추적한다. 더불어 현대 의학 연구에서처럼 막대한 지원금이나 깨끗한 실험실은 꿈도 꾸지 못했고 병원의 안 쓰는 창고 구석을 실험실로 삼아 연구를 이어갔던 존 케이드의 영웅적인 면모와 헌신적인 노력도 집중 조명한다.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고 현대 의학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교훈이 담긴 리튬의 발견 과정을 정리한 의미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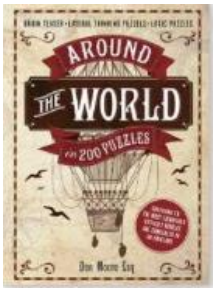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조울병, 간단히 정리한 역사
2. 자연주의자
3. 리튬
4. 돌파구
5. 여파
6. 예방
맺음말

<저자 소개>

월터 브라운(Walter Brown)은 브라운 대학교에서 40년 이상 정신의학자 겸 교수로 활동해 왔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사이콜로지 투데이」 등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 : AROUND THE WORLD IN 200 PUZZLES
가제 : 200가지 퍼즐로 떠나는 세계여행
저자 : Dan Moore
출판사: Quarto Publishing
발행일: 업데이트 예정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취미/실용



***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영감을 얻은 퍼즐 모음집 - 19세기 배경과 물건들만 등장하는 다양한 난이도의 퍼즐과 멋진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책**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는데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직항으로 열 몇 시간만 날아가면 거대한 러시아 대륙을 건너 유럽에 도착하는 시대에 누가 80일동안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두고 내기를 하는 건 코미디처럼 들릴 수도 있다. 시간과 비용만 있다면, 그리고 목적지에 두 발을 디디는 것만이 목표라면 80일은 오히려 지루하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넉넉한 기간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짚신을 수십 개씩 엮어서 등에 지고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걸어서 이동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퍼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저자는 모든 것이 느릿느릿 흘러갔던 시대를 되새기고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200가지 퍼즐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대표작『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영감을 얻어 비행기나 휴대전화 같은 신 문물을 일체 배제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풍경과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당시에 일상적으로 입고 먹고 사용하던 음식과 물건들만 등장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각 퍼즐은 고풍스럽고 섬세한 일러스트와 함께 등장하며, 기억력, 수학,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수평적 사고력 등 어떤 기능을 특히 필요로 하는지 또한 제목 아래 명시되어 있다. 퍼즐마다 난이도도 제각기 다른데 200개 중 2개만 제외하고 난이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람마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른 만큼 객관적인 난이도를 미리 밝히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책 맨 뒤에는 풀이가 있고, 창의력 문제라 정해진 해답이 없는 몇 가지 퍼즐을 제외한 모든 문제의 답이 나와 있다. 4륜마차나 인파 사이를 자연스레 돌아다니던 동물들, 증기 기관차,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악기와 시계, 전화기 같은 물건들과 19세기의 사회적인 분위기, 관습, 생활 방식이 퍼즐과 함께 제시되어 흥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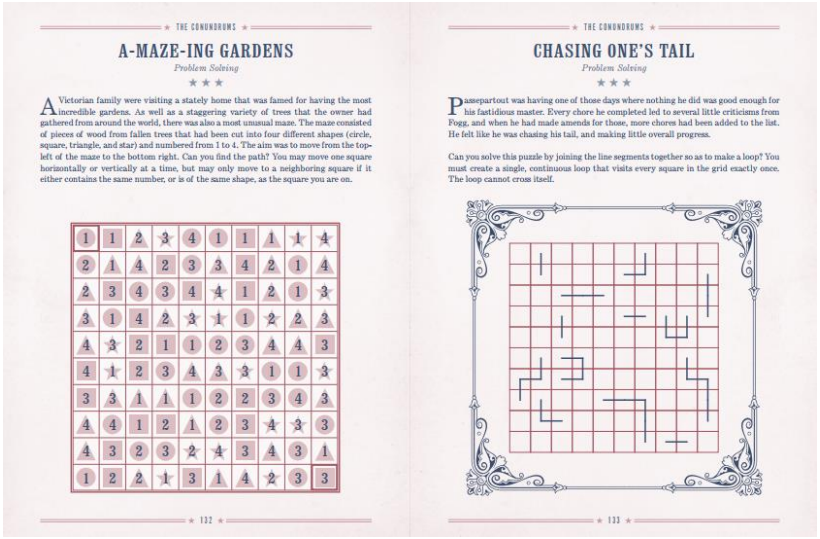
저자는 200가지 퍼즐을 어떻게 푸느냐는 전적으로 푸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 순서대로 풀 필요도 없고 답을 찾아내는 어떤 방식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과 함께, 저자는 필리어스 포그가 온갖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결국 80일 안에 세계 여행을 마친 것처럼 독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과정을 즐기라고 권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퍼즐 책이다.

<목차>

머리말

수수께끼

해답



THE CONUNDRUMS

A-MAZE-ING GARDENS

Problem Solving

★ ★ ★

A Victorian family were visiting a stately home that was famed for having the most incredible gardens. As well as a staggering variety of trees that the owner had gathered from around the world, there was also a most unusual maze. The maze consisted of pieces of wood from fallen trees that had been cut into four different shapes (circle, square, triangle, and star) and numbered from 1 to 4. The aim was to move from the top-left of the maze to the bottom right. Can you find the path? You may move one square horizontally or vertically at a time, but may only move to a neighboring square if it either contains the same number, or is of the same shape, as the square you are on.

1	1	2	3	4	1	1	1	1	4
2	1	4	2	3	3	4	2	1	4
2	3	4	3	4	4	1	2	1	3
3	1	4	2	3	1	1	2	2	3
4	3	2	1	1	2	3	4	4	3
4	1	2	3	4	3	3	1	1	3
3	3	1	1	1	2	2	3	4	3
4	4	1	2	1	2	3	4	3	3
4	3	2	3	2	4	3	4	3	1
1	2	2	1	3	1	4	2	3	3

132

THE CONUNDRUMS

CHASING ONE'S 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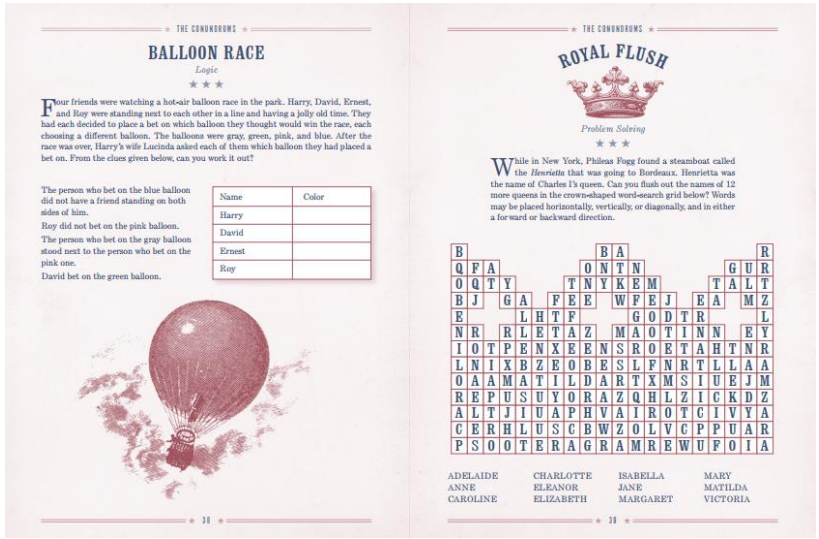
Problem Solving

★ ★ ★

Passepartout was having one of those days where nothing he did was good enough for his fastidious master. Every chore he completed led to several little criticisms from Fogg, and when he had made amends for those, more chores had been added to the list. He felt like he was chasing his tail, and making little overall progress.

Can you solve this puzzle by joining the line segments together so as to make a loop? You must create a single, continuous loop that visits every square in the grid exactly once. The loop cannot cross itself.

133



THE CONUNDRUMS

BALLOON RACE

Logic

★ ★ ★

Four friends were watching a hot-air balloon race in the park. Harry, David, Ernest, and Roy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in a line and having a jolly old time. They had each decided to place a bet on which balloon they thought would win the race, each choosing a different balloon. The balloons were gray, green, pink, and blue. After the race was over, Harry's wife Lucinda asked each of them which balloon they had placed a bet on. From the clues given below, can you work it out?

The person who bet on the blue balloon did not have a friend standing on both sides of him.
Roy did not bet on the pink balloon.
The person who bet on the gray balloon stood next to the person who bet on the pink one.
David bet on the green balloon.

Name	Color
Harry	
David	
Ernest	
Roy	

38

THE CONUNDRUMS

ROYAL FLUSH

Problem Solving

★ ★ ★

While in New York, Phileas Fogg found a steamboat called the *Henrietta* that was going to Bordeaux. Henrietta was the name of Charles I's queen. Can you flush out the names of 12 more queens in the crown-shaped word-search grid below? Words may be placed horizontally, vertically, or diagonally, and in either a forward or backward direction.

B						B	A							R
Q	F	A					O	N	T	N			G	U	R
O	Q	T	Y				T	N	Y	K	E	M		T	A	L	T
B	J		G	A		F	E	E		W	F	E	J		E	A		M	Z
E			L	H	T	F				G	O	D	T	R				L	
N	R		R	L	E	T	A	Z		M	A	O	T	I	N	N		E	Y
I	O	T	P	E	N	X	E	E	N	S	R	O	E	T	A	H	T	N	R
L	N	I	X	B	Z	E	O	B	E	S	L	F	N	R	T	L	L	A	A
O	A	A	M	A	T	I	L	D	A	R	T	X	M	S	I	U	E	J	M
R	E	P	U	S	U	Y	O	R	A	Z	Q	H	L	Z	I	C	K	D	Z
A	L	T	J	I	U	A	P	H	V	A	I	R	O	T	C	I	V	Y	A
C	E	R	H	L	U	S	C	B	W	Z	O	L	V	C	P	P	U	A	R
P	S	O	O	T	E	R	A	G	R	A	M	R	E	W	U	F	O	I	A

ADELAIDE
ANNE
CAROLINE
CHARLOTTE
ELEANOR
ELIZABETH
ISABELLA
JANE
MARGARET
MARY
MATILDA
VICTORIA

39

<저자 소개>

댄 무어(Dan Moore)는 영국의 퍼즐 전문 작가로 크로스워드 퍼즐, 미로 찾기, 암호 퍼즐, 스도쿠 등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퍼즐을 만들었다. 저서로는 『Sherlock Holmes' Book of Conundrums』이 있다.